국양해운
사무실 해남빌딩으로 이전

국양해운은 12월1일부로 사무실을 남대문로 동성빌딩에서 북창동 해남빌딩으로 확장이전했다.

△주소 : 서울 중구 북창동 21번지 해남빌딩 2층 221호 △전화 : 02-774-0474(이전과 동일)

△팩스 : 02-6496-2734/2779(이전과 동일)

고려해운
말레이시아서비스 강화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하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KMS항로 (KOREA-MALAYSIA SERVICE)를 11월30일부터 2항차로 증편하여 운항하고 있다. 기항지는 부산-인천-청도-홍콩-포트켈랑-싱가포르 순이다.

한편, 고려해운은 11월14일 인천-홍콩 직항서비스를 개시했다. 동사는 한국발 홍콩서비스인 KHS(KOREA HONKONG SERVICE)를 IHS(INCHON HONGKONG SERVICE)로 개편하여 인천항을 추가기항하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
아프리카 농장 개발 박차

국내 최초 토탈 물류해운회사인 대우로지스틱스(대표 안용남)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최근 아프리카 마가다스카르에 부지 130만 헥타르(1만3000㎢) 규모의 농장을 확보, 개발키로 해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향후 15년간 확보한 부지를 통해 농지를 개발해 연간 400만톤의 옥수수와 50만톤의 팜오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농지 임대 기간은 99년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역외 농지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사 측은 토지 규모가 방대하다보니 실제 재배는 국내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전 세계 곡물, 광물 등을 개발해서 직접 운송해 오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 500헥타르에서 옥수수 플랜테이션을 시작했으며 현재 수마트라, 자바 등지에도 16만 5000 헥타르 규모의 오일팜 플랜테이션을 개발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100척 이상의 선대를 확보, 세계적인 선사가 되어 국내외 구축한 항만물류거점을 잇는 막힘없는 운송을 해나간다는 전략이다. 2011년까지 매출목표는 10조원이다.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에 해상화물 운송사업과 국적선사로 등록한 대우로지스틱스는 해상운송이 사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시멘트선, 탱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해운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으로 이전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이 강남구 삼성동에 신사옥을 마련해 11월22일까지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강남시대를 열었다.

대한해운은 최근 강남구 삼성동에 대지 1893.3㎡(572.72평)에 연면

적은 1만401.50㎡(3146.31평),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사옥 건설을 마무리하고 입주했다. 지난 2007년 3월 착공된 대한해운의 신사옥은 1년 8개월여의 공기 끝에 완공됐다.

한편, 대한해운은 싱가포르 법인인 KOREA LINE(SINGAPORE)PTE.LTD에 자본확출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운영자금 및 영업활동을 위한 유동성 제고)을 위해 300억원(2,000만달러)을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하기로 했다고 11월26일 공시했다.

대한해운 싱가포르 법인은 이번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3,500만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STX팬오션
국제거래신용대상 수상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은 12월1일 개최된 '제14회 국제거래신용대상' 시상식에서 법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신용대상은 외국과의 국제거래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성을 크게 선양하고 국가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중재학회 (회장 김석철)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한국중재학회측은 "올해 STX팬오션이 3분기 누적실적기준으로 매출액 6조5,000억, 영업이익 6,144억에 이르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특히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의 한 축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도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대유 STX팬오션 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외국기업과 비즈니스가 많은 만큼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를 높게 평가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최고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 리딩 해운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X팬오션과 함께 개인부문 대상은 이화언 대구은행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11월19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에지송 로바웅(Edison Lobao) 브라질 에너지장관을 만나 조선, 해운, 에너지, 오프쇼어 등 STX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각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협의했다.

강 회장은 "현재 STX는 브라질에 해운, 조선, 중공업분야가 진출해 있다"며 "리우 데 자네이루에 위치한 조선소인 'STX Off-Shore Do Brazil' 뿐만 아니라 해운, 에너지, 중공업 등 각 분야에서 브라질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TX그룹은 브라질에서 STX조선, STX팬오션이 각각 조선소 운영 및 철광석, 철강제품 운송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STX와 STX중공업, STX산업플랜트 등 계열사들이 원유시추선 및 디젤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팬스타라인닷컴
고베 주1회 서비스 실시

팬스타 라인(일본 총대리점=산스타 라인)이 오는 12월20일, 주 1회 부산/코베 서비스를 개시한다. 팬스타 라인의 코베 기항은 처음이다. 오사카 남항/부산 간의 주 6회(일요일 제외한 데일리 운항) 서비

스 가운데, 토요일편을 코베 기항으로 하며 오사카/부산 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 5회가 된다.

산스타 라인은 코베 기항에 대해 "수출에서는 RORO선의 기능을 살린 브레이크 화물(건기, 자동차 등) 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화물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코베 서비스는 부산 일요일 오전 10시 도착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으로 월요일 아침 현지 공장 조업 시에 화물이 늦지 않는 신속 수송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객면에서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베 서비스편은, 국제 페리가 기항하는 신항 제4제방(포트 터미널)을 이용한다. 스케줄은, 일본 수입이 부산 금요일 15시 10분 출항/코베 토요일 10시 입항, 일본수출이 코베 토요일 15시 10분 출항/부산 일요일 10시 입항할 예정이다.

"팬스타 · 써니"(270 TEU, 리퍼 플러그 85기, 여객 정원 683명)와, "팬스타 · 드림"(220 TEU, 리퍼 플러그 50기, 여객정원 681명)가 1주간 마다 교대로 기항하는 배선으로 운항 될 예정이며, 편도 운항 시간은 속도로 19시간이다. 20일의 고베 기항 제 1선은 "팬스타 · 드림"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산스타 라인은 "코베항에서 특히 브레이크 화물의 수송 수요가 왕성하기때문에, 이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해 수출에서는 부산항으로부터의 보세운송으로 현지 보세공장 등에 수송하는 것으로, 월요일아침 공장 조업 시작될때까지 화물이 도착가능한 서비스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객에서도"접근성이 좋은 포트 터미널을 활용함으로써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코베 서비스의 상황진척을 봐서 장래적으로는 증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팬스타 라인은 지난 2002년 4월, "팬스타 · 드림" 1척으로 주 3편의 오사카/부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팬스타 · 써니"를 투입해, 2척 운항의 서비스 체제로 했고, 일본 각지를 트럭이나 철도 수송으로 묶는, 페리&트럭이나 페리&레일의"팬스타 · 울트라 · 익스프레스"(PUE) 서비스도 전개 중이다.

지난해 수송 실적은 컨테이너 화물이 4만 8100 TEU(수출 2만 4400 TEU, 수입 2만 3700 TEU), 차량(활어차, 건기, 무진동차등)이 약 1750대, 브레이크 화물이 약 11만 4000톤(수출 약 9만 5000톤, 수입 약 1만 9000톤). 여객은 18만 4000명. 처음 연간기준으로 2003년에 비해, 최근 4년간에 컨테이너 화물이 4.2배, 여객이 2.4배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진

한진– 군산시 연안 컨선 신규항로 개설

내년에 군산–광양간을 오가는 연안운송이 시작된다.

㈜한진(대표 석태수)과 군산시는 11월11일 군산시청에서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군산–광양간 연안해송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11월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진과 군산시는 군산항의 물류활성화 지원은 물론 전라북도 소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진은 페이퍼코리아㈜ 등 군산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기업의 수출입화물 운송을 수행하게 되며 컨테이너 선박 2척을 투입해 내년 4월이나 5월경부터 주 4회 군산과 광양항을 운항하게 된다.

군산시 측은 이번 군산–광양간의 항로 개설을 통해 그 동안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육상운송에 의존해야 했던 전북도내 기업들에게 연간 14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 관계자는 "전북지역 군장산업단지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수출입 물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이래범 시의장을 비롯해 류영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한진 김기선 사업본부장 등 행사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진해운
임원 전체워크숍 개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원 전체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진해운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박정원 사장을 비롯해 국내 전 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30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임원들의 적극적 리더십 발휘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비상경영 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실시했다.

박정원 사장은 "과거에도 위기는 곧 기회였으며, 우리는 많은 난관을 함께 극복해왔다"며 "피하면 피할수록 위기는 점점 더 강해지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진해운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전 임직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위기의식 무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내년도 사업목표 달성 의지 표명 및 중장기 회사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이 12월1일 환경오염 방지 기술 업체인 ㈜삼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시켰다고 발표했다.

㈜삼올은 KIST(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가 개발한 혐기성 자원화와 발전시스템의 국내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회사로, 양돈 분뇨를 정화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체 열원이나 발전용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양돈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연간 3,500만톤 정도로, 이 중 275만톤이 국내 3곳의 해양에 버려지고 있어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런던 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한진해운은 이번 투자를 통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의 보급과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달력을 이용한 마켓팅 화제

새해 달력을 받은 사람들은 한해가 다 갔다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유난히 적은 휴일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일찍 받은 달력에 희망찬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현대상선(대표 김성만, hmm21.com)이 새해 달력을 활용해 발 빠른 마케팅을 전개해 화제다. 현대상선은 지난 9월 말 새해 달력 제작을 끝내고 전 세계 28개 현지법인과 76개 해외지점, 1개 사무소로 모두 발송했다. 해외 각 법인과 지점은 이 달력을 고객, 투자자,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여 송년인사와 함께 회사를 알리는 '발과 입으로 전하는 마케팅 전'을 펼친다.

현대상선의 새해 달력은 해외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답게 미주, 구주, 중국, 일본, 홍콩, 국내용 등 다국적 버전으로 총 6종류다. 벽걸이형과 탁상형으로 국내용 약 4만부와 미주, 구주, 아주 등의 해외용 7만부 등 총 11만부가 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12월 중 달력을 주고받는 것에 비하면 현대상선의 달력배포는 1~2개월 앞선 것이다. 이는 선박을 이용하여 미주나 구주 등 해외법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한여름부터 제작에 들어가 9월에 제작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배달에 들어갔다.

현대상선 측은 "달력은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라 기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라며, 고객, 화주들에게 일찍 전달되어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달력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선 등의 선박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를 근접 촬영하여 선박과 함께 사진으로 실었다. 1월에는 컨테이너선 '현대 굿윌' 호의 '자이로 컴퍼스'로 항상 진북을 가리키는 전자식 나침반으로 선박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항해의 핵심 장비가 실렸다.

한편, 현대상선은 해마다 컨셉을 달리하여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국내외 육·해상 임직원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달력을 제작하였고, 재작년에는 국내외 임직원 자녀들로부터 사내 공모한 그림으로 달력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었다

부산항만공사
타깃마케팅으로 부산항 활로 모색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전세계 화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BPA)가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주요 선사를 상대로 한 타깃 마케팅에 나섰다.

BPA는 11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의 코스코와 차이나쉬핑 등 중국을 거점으로 운영중인 주요선사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에 나섰다.

특히 이번 마케팅에는 이들 중국 양대 선사를 주요고객으로 하는 대한통운의 CEO도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BPA 노기태 사장은 11월17일 코스코의 순쟈강 총재를 만나 세계 6대 선사인 코스코의 부산항 이용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부두 폐쇄가 없는 한 부산항의 안정성 때문에 최근 주요선사들의 부산항 환적거점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일에는 세계 5대 선사인 차이나 쉬핑의 리

샤오더 총재와 만나 부산항 각 터미널 간 서비스 및 요율 경쟁과 최근의 달러 및 위안화 상승 등으로 부산항 하역비가 약 25% 인하된 효과가 있음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선사들은 운영항로는 통폐합하고 비수익항로를 철수하는 등 비용절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BPA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중국항만직기항을 줄이고 부산항 환적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PA는 또 18일 오후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상하이에 있는 국적선사 10개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밖에도 부산항의 자매항인 상하이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하이 항무그룹(SIPG)을 방문하여 양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BPA는 11월25일과 26일에도 일본의 3대 선사인 NYK, MOL, K-LINE 등을 상대로 한 타깃마케팅에도 나섰다.

울산항만공사
울산신항 사업설명회 개최

내년 7월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개장을 앞두고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아이포트(주), (주)동방이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종운)는 12월2일 울산신항 광석부두에서 울산신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은 울산시 남구 황성동 온산항 북방파제 인접 해면을 매립해서 축조되는 울산신항 1-1단계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난 6월 이후 준공전사용 중인 광석부두와 더불어 울산아이포트(주)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며, (주)동방이 운영사로 선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UPA가 울산신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사업설명회로서 울산신항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울산지역 하주와 선사, 복합운송업체 등 울산항 이용고객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UPA에 따르면 특히 이번 설명회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운항하고 있는 실습선 한바다호가 울산신항 광석부두에 접안,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자들은 승선체험을 할 수 있었고, 공사 중에 있는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도 근거리에서 볼 수 있어 보다 실감나는 사업설명회가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한편, UPA는 울산신항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개장 시까지 국내외 선사를 대상으로 기항지 개설을 협의하는 한편, 하주와 복합운송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울산신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공동물류센터 건립 설명회 개최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11월13일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들을 초청하여 아암물류단지내에 LCL화물 콘솔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량화물(LCL화물) 활성화를 위

한 것으로 인천항에 LCL화물 콘솔서비스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첫 번째 설명회라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11월6일부터 다국적 물류기업인 (주)로그프레트코리아와 (주)인천중앙물류가 공동으로 LCL화물을 인천항에서 선적해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LCL화물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이번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FCL화물뿐만 아니라 LCL화물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시설로서,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LCL화물의 콘솔서비스 전용 공동물류센터는 아암물류단지내의 1만 7,918㎡(5,420평)의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LCL화물은 인천항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LCL화물 콘솔서비스가 부산항에서 이루어져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들은 비싼 물류비를 지불하면서 부산항을 이용해왔으나 인천항의 새로운 LCL화물 콘솔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물경기 침체와 비싼 물류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물류비 절감 혜택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향후 2~3번의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동물류센타 건립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많은 포워더 업체에게 줄 공동물류센타 건립 사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케이엘넷
신용등급 BBB⁺로 상향

물류IT 전문기업 케이엘넷(www.klnet.co.kr, 대표 박정천)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로부터 BBB⁺등급을 받았다고 11월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BB+등급을 획득한 이후, 1년만에 3단계 상향된 수준으로 케이엘넷의 비전 2020달성 의지와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케이엘넷은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용 ▲다수의 수상 경력과 인증, 특허취득 ▲주요 사업인 EDI 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에 대한 평가"라고 밝혔다.

케이엘넷 박정천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용 평가에서 이전보다 상향된 점수를 얻어 기쁘다"고 밝히고, 이번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영업기반 확대 및 사업다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 신용등급은 AAA에서부터 D까지 10등급으로 나뉘며, 평가자의 필요에 따라 각 등급을 +,0,-로 세분할 수 있다.

한국선급
2008 임금협약 체결 조인식 가져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2008년 11월 14일 한국선급 대전본부에서 오공균 회장과 이운복 전국공

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금협약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한 한국선급은 최근 닥쳐온 경제 위기에 맞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양측의 계속된 노력과 대화를 통해 마침내 임금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노사는 기본급 5.7% 인상과 경영실적에 따른 연말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세계 일 류선급 도약을 위한 내부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창조적인 임금체계 개선작업을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오공균 회장은 "오늘의 임금협약 체결은 그간 힘들었지만 결국은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서로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고 창조적인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운복 노조위원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금협약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같은 노사간의 합의가 앞으로의 발전과 더 나은 관계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1월12일 실시한 올해 임금협약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70.3%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또한, 선급은 11월10일 알제리 해사당국과 알제리 정부대행검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BV, DnV, GL에 이어 4번째로 정부검사권을 부여받게 되어 알제리 국적선박에 대한 협약검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알제리 국적의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2008 추계 세미나 개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대표이사 이윤재)은 11월 26일 '중국에서의 클레임 핸들링', '2009년 P&I 갱신 전망', 'KP&I 운영현황과 비전' 이라는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윤재 KP&I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2000년도에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우리 해운의 P&I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KP&I를 설립했다"며 "KP&I이 원년 2000년도에 가입선박 156척, 연간보험료 124만불 규모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가입선박 623척, 연간보

험료 1430만불로 약 14배 이상의 외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약 1,000만불에 달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축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인 '중국에서의 클레임 핸들링'은 최근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과 그에 따른 해난사고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중국 전문 변호사인 S.G. Huang이 발표를 맡았다.

S.G. Huang은 이날 발표에서 주된 해난사고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적용 법률을 언급하며 선주-선장, 선주-P&I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세계적인 보험 브로커인 마쉬와 Andrew Reynolds가 '2009년 P&I 갱신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내년에 General Increases의 인상을 암시했으며, 이어 KP&I 박범식 전무는 KP&I의 설립배경과 운영현황, 정책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경쟁력 있는 P&I 담보와 함께 우위의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오총장, 꾜해양수산대학포럼 참석

한국해양대학교 오거돈 총장이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미얀마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 해양 · 수산대학교 포럼(AMFUF)에 참석했다.

시아 해양 · 수산대학교 포럼은 해양수산분야에서 미주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주관으로 2002년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10개국 18개 기관이 가입됐다.

회의에 참석한 오 총장은 대학간 해양수산 정보교환과 동향 파악도 중요하지만 IMO나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AMFUF 회원대학이 전 세계 해기사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같은 기구로서 세계 해기사 공급센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AMFUF의 상설사무국으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과 참가대학(회원대학)간 유대강화, 사무처리, 매년 실시되는 회원교의 포럼 준비, 행사지원, 기타 사무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문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11월26일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 홀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라는 주제로 한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석학들이 참여해 발간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출판을 기념에 개최됐는데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현규 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유종필 국회도서관 관장, 한나라당 장광근 국회의원, 박용안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등이 내외귀빈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강종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의 출판에 즈음에 한일문제와 독도문제를 새롭게 접근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오늘 심포지엄이 한일간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문제를 조명해보고 이를 독도문제를 재정립해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대학교 교수이자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대표 편저자인 현대송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와다 하루키 동경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이라는 주제를,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